<녹 취 문>

과제명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자	반채진 (전 동양화학 근무 현 주)다금물류 고문)		
면담자	송미정	면담지원자	정지선
면담일시	2025. 08. 08.	면담장소	인천시 중구 인중로 87 삼익아파트 상가 207호
녹취문 작성자	송미정	회차	1회차

1. 시작멘트: 일시 및 연구진 소개 (00:00:23~00:01:12)

본 면담은 2025년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의 주민 구술채록을 위한 인터뷰입니다.
옛 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 도시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위해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구술해 주실 분은 반채진 선생님입니다.
일시는 2025년 8월 8일 금요일 지금 10시 1분이고요. 장소는 인천시 중구 인중로 87 삼익아파트 상가 207호입니다. 면담 진행은 송미정이 하고 지원자는 정지선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개인신상(00:01:13~00:02:14)

구술자: 네 안녕하세요.

면담자: 바쁘신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구술 기록을 위해 성함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을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네 저는 반채진 입니다. 1953년 계사년 출생이고요.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에서 태어났습니다.

면담자: 이번 구술 기록에 참여해 달라는 섭외를 받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구술자: 네 그동안 제가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며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벌써 지난 사회생활을 회상하고 이 지역의 변화에 대하여 자료를 남길 때가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거울을 보게 되더군요.

3. 집안 농사일과 학창시절(00:02:15~00:07:01)

면담자: 그리고 고향인 음성에서 부모님 농사일을 도우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셨는데 제가 자서전을 좀 읽어보니까 선생님이 그때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에피소드가 좀 많았을 텐데 그런 얘기도 좀 한번 해 주세요.

구술자: 네. 저는 초등학교를 충북 음성 고향에서 졸업하고 중학교는 청주에서, 그리고 5년제 '국립 충주공업고등전문대학'(현재 국립 교통대학교)을 다니면서 충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8년간 그 유명한, 느릿느릿 다니는 충북선 열차를 타고 기차 통학, 그리고 그 친구들과 만나서 자취 생활도 했고 고학년이 돼서 졸업 무렵에는 입주 가정 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제 학업을 마쳤습니다.

면담자: 입주 가정 교사 하실 때는 재밌는 일은 없으셨어요?

구술자: 재미있었죠.

면담자: 그래도 뭐 한 가지

구술자: 제가 가르쳤다고 그럴까. 데리고 있던 학생이 좀 성적이 낮았었는데 저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중상위권까지 올라오는 이런 보람을 느꼈죠.
'아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면담자: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구술자: 저희 아버님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5학년 가을이에요. 불의의 사고로 운명하셨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추억은 가족을 위해 농사일에 묻혀 사시는 모습과, 제가 지게 지고, 지게 아세요? 지게 지고 농사일을 거들던 기억뿐이 없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혼자의 몸으로 논농사 밭농사 직접 지으시며 어린 저와 3명의 동생들을 키우시고 가르치시느라 몸이 망가지고 눈물 짓는 모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주 눈시울에 눈물이 보이죠.

면담자: 예전에는 왜 이렇게 다 힘들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변 환경이 그래서 그랬는지

구술자: 우리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삶이 되게 비슷했을 거예요. 물론 뭐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그저 휴일이나 주말, 방과 후에는 집에 와 농사일 돕고, 또 밤에는 학교 공부 좀 미흡한 거 하고, 새벽에 눈 뜨자마자 또 학교 가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했죠.

면담자: 그리고 인천으로 오시게 된 계기나 배경이 있으세요? 그 당시에 인천에 대한 인상이나, 어떤 도시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구술자: 생각을 많이 했죠.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충청북도 청주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4년 6개월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때 하던 일은 그 식용유 아시죠? 그 쌀을 도정하고 남은 쌀겨에서 식용유를 추출하는 그런 일을 4년 6개월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수도권 쪽으로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도권 몇 군데를 알아보던 중에 인천은 수도권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인천은 공장 공업지대도 많고, 또 바다를 끼고 있어서 아주 뭐 매력적이라고. 제 마음에 당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4. 동양화학 입사 후 첫 걸음부터(00:07:02~00:35:03)

면담자: 그리고 동양화학에 입사한 연도와 입사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제가 동양화학에 입사한 것은 1978년 10월 21일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수도권으로 직장을 옮기려고 노력하던 중, 일간지인데 이거 특정 얘기해도 되나요? 조선일보의 사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다행히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동양화학은 화학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입사하고 싶은 아주 꿈의 직장 같은 곳이었죠. 이곳에 합격해서 입사하게 된 저에게는 아주 행운이고 영광이었습니다.

면담자: 동양화학에 입사하시고 첫 업무가 직업 훈련, 품질 관리 그리고 회사 홍보 등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우선 회사 내에 직업 훈련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구술자: 네. 우리나라에는 직업 훈련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기업체는 그 일정 금액을 직업 훈련에 투자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한 기업체는 전문적인 기능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우수한 기능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6개월간 기술적인 이론과 실무를 교육시켜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훈련 기간에는 회사에서 각종 교육 자료 그리고 안전 장비를 포함한 작업복이나 일체를 지급하고 전문 기술자가 직접 교육하며 훈련생은 이론과

실무를 배워 제조 현장에 배치됩니다. 훈련 기간 동안에는 일정 금액의 훈련 수당이 지급되어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훈련생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회사에서는 훌륭한 기능 인력을 확보하게 되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면담자: 예. 그러면은 그 직업 훈련을 받는 학생들이 100% 다 동양화학에 채용됐나요? 아니면은 중간에 탈락하거나 입사를 하지 않거나 했던 학생들도 많았을 텐데 그런 얘기도 좀 해 주세요.

구술자: 그렇죠. 훈련 과정은 4개월 6개월 1년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직업의 난이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데 동양화학에서 시행한 건 6개월 과정입니다. 6개월 과정을 수료하면 100% 동양화학의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다만 훈련 도중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 중도 퇴사하거나, 6개월 훈련을 수료했음에도 자기가 더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다든지, 학업을 또 더 계속하겠다든지 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동안 훈련비를 제공한 거나, 경비에 대해서 반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면담자: 자유롭게 퇴사하고 가고 그러셨구나. 이제 회사 홍보와 안내 할 때 범위와 그 제품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술자: 동양화학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화학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연구하는 사람,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술 습득과 그리고 그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공부하고 싶고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전국의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현장 견학도 오고 또 일정 기간 현장 실습을 합니다. 견학은 단기간에 하루 정도 와서 보고 가는 거고, 현장 실습은 학생들이 한 달간 공장에 와서 공장 운영과 제조 방법 이런 기술을 습득하며 현장 실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공계 학생들은 전문적인 여러 업체를 찾아다니며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요.

구술자: 그 다음에 또 학생들 외에 일반 사회에서도 화학 제품 분야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거나 또는 상업 공업 분야 다른 분야에서도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공장주변에 주민들. 이런 분들도 저 옆에 커다란 공장인데 뭐 하는 곳인가 관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회사를 방문합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 주로 동양화학은 소다회. 화학명으로는 탄산 나트륨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포함해서 염화칼슘, 중조, 인산, 고무의약품, 그리고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여러

시약 등 수백 가지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제품의 특성, 용도, 사용 방법, 안전성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는 거죠.

면담자: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셨어요. 1980년 필리핀 백시멘트 공장 건설 투자 결정과 맞물려서 경제사절단이 동양화학에 방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홍보 자료를제작을 하셨는데 그 제작 과정이나 에피소드 같은 것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구술자: 그때 얘기하면 지금도 진땀이 납니다. 제가 뭐 외국어 영어, 외국인 만나면 인사도 제대로 잘 건넸는지 모를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회사에 외국인 방문이 거의 없으니까 외국어로 회사를 홍보나 안내하는 자료가 없었어요. 마침 그 필리핀 경제사절단이 회사를 방문하게 돼서 회사는 부랴부랴 안내 자료를 제작하게 됐죠.
그 일이 저한테 지시가 떨어졌어요. 영어나 외국어 전혀 내가 뭐 말할 수도 없고, 그러나 어쩝니까. 하게 되면 또 해야지. 그래서 여러 선배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영문 원고를 만들고, 또 사진은 주로 제가 찍고 공장 현장이나 특이한 사진 찍고. 그래도 부족해 갖고 저희 동양화학의 본사에 유능한, 외국어에 능통하고 해외 영업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도 솔직히 얘기하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간부님들도 마음에 안 드셔 가지고, 결국 제가 하는 게 뭡니까? 온몸에 땀뿐이 더 나요. 진땀만 나죠. 그래서 서울에 옛날에, 각 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생산성 본부라고 있어요.
'한국 생산성본부' 그쪽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영화 '꽃 피는 팔도 강산'이라고 있었어요. 그 영화를 제작하신 윤혁민 작가가 계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고 또 KBS의 그 당시에 매일 6시 정각에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의 국군' 하는 국군 방송이 있었어요. 거기서 멘트를 하시는 최평웅 아나운서가 계셨어요. 그분의 녹음으로 영문과 우리말 해서 두 편을 제작을 했죠. 요즘은 슬라이드 거의 안 쓰죠.
영문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화면이 지나가면 멘트, 또 멘트.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한 10여 년 사용하고, 그 후에 제가 그 업무를 떠난 다음에는 VTR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을 해서 사용했죠. 10여 년간 그거를 사용했습니다. 그 영문 슬라이더를 만들던 그때가 제가 신혼 때였어요. 요즘은 아기를 출산하면 옆에서 같이 지키잖아요. 전 그걸 못하고 이거 제작하러 출장 가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뭐 아내들이 좀 눈을 흘릴까. 그런데 그 당시에 또 회사 일이라면 이해해 주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면담자: 아마 사모님이 많이 서운해 하셨는데 표현은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구술자: 그건 요즘 세대 사람들 이야기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벌써 한 40년 전 아닙니까?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면담자: 그리고 1980년대 초,중반에 동양화학이 생산한 '물 먹는 하마' '락스킹' 등이 주부들한테 최고의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때 그 파급 효과도 되게 컸었는데, 당시 인기를 어떻게 실감하셨어요?

구술자: 인기는 실감했는데 저는 죽었다고 해야 되나, 개인 생활이 거의 없었죠.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 동양화학은 전부 원료 제품만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관련이 없는 제품을. 그래서 일반 소비자는 동양화학도 잘 모르시고 그런 시대인데,
동양화학에서 제일 처음 생활용품에 진출한 게 뭐냐 하면 '옥시크린' 옥시크린은 아시죠?
그리고 '파워크린'. 그거를 처음에 출시해서 많이 히트를 했습니다. 이 '옥시크린'
'파워크린'은 저기 익산에 있는 과산화 수소 공장에서 생산했고요.
회사에서는 생활용품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인천공장 여기서는 제습제인 '물 먹는 하마', 그리고 염소계 표백제인 '락스킹'을 생산하게 됐어요.
처음 시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한테 선전도 하고, 전국에 보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마트가 몇 개입니까? 일반 상점까지 치면 뭐 저도 몰라요. 셀 수도 없고 그걸 이전부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업 인원 주부 사원 약 100여 명이 주말도 반납하고 매일 10시까지 작업을 했죠. 지금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물론 지금도 뭐 2조로 나눈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그것도 '물 먹는 하마' 제품이 여름철에 많이 나가잖아요. 장마철에 습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름철 들어오면 주부님들도 정말 고생깨나 하고, 저는 그 작업이 차질 안 나게끔 지휘하고 감독하고 도와주느라고 저도 땀 꽤나 흘리고 그랬습니다.

면담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 동양화학에 현장 쪽에 여직원이 있었어요?

구술자: 주부 사원들이

면담자: 주부 사원 말고 정식 직원. 남자 정식 직원처럼 현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구술자: 생산부서에는 그런 여직원은 없었습니다.

면담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신 주부 사원들은,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 그렇게 진행을 하신거지요?

구술자: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계절 상품이 되어가지고 여름에 많이 쓰는, 요즘은 겨울에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겨울에는 별로 보급이 안 됐고 인식이 안 됐으니까. 여름에 한철 생산 제품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계약직 사원이라고 일정 기간 근무하는 사원.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요? 옥시라는 회사가 있어요. '옥시크린'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옥시' 그쪽으로 통합이 돼서 지금 전부 정규직 사원들이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면담자: 그러면 옛날 그때 당시에는 동양화학 현장에서는 남자 직원들이 많았고 주부 사원들은 아르바이트 식으로.

구술자: 그러니까 현장에 동양화학 다른 제품 생산하는 데 남자들이 다 했고요. '물 먹는 하마' '락스킹' 여기는 주부 사원들만 있고 남자들은 뭐 한 두세 명 있으면서 지게차 지원이나 장비 지원이나 원료 지원 이런 정도만 했고, 포장 시설이 어느 정도 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주부 사원들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주부 사원들이 했지. 그래도 바쁠 때는 우리 사원 아파트에서 사원들 부인들 이런 분들도 동원해서 작업을 하고 그랬습니다.

면담자: '물 먹는 하마'와 '락스킹' 제작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술자: 저희 쪽에서 한 거는 제품을 제조한다기보다 소분 포장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동양화학에서 생산하는 염화칼슘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염화칼슘이 녹을 때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일정한 용기에 소량을 넣어서, 반투막 용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한쪽 표면에서 습기가 안으로는 들어가는데 안에 있는 습기는 밖으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계란 껍질을 벗기면 안에 막 같은 게 있죠. 그게 반투막 그런 겁니다.
그거는 안에 있는 물질은 밖으로 안 나와요. 그 밖에 있는 수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그 그런 실험을 해요. 계란 겉에 껍질을 염산 같은 걸로 녹이면 그 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물에 담가 놔 봐요. 그러면은 처음에 10g이었던 게 한 1시간 있으면 12g이 된다든지, 물이 투입하는 거죠. 삼투압을 이용해서. 화학 용어로 삼투압이라고 그러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수분이 통과되죠.

수분이 한편으로만 통과되고 반대 방향에서는 통과되진 않는 반투막 용지를 이용해서, 대기 중이면 좀 너무 거창하고, 실내나 이런 데 있는 습기를 흡수하고, 그러니까 장농이나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는 효과가 크죠.
그렇게 생산하는 제품이 '물 먹는 하마'이고 '락스킹'은 염소계 표백제입니다.
우리 가정에 보통 여러 가지 회사 락스가 있잖아요. 그 락스의 일종이에요. 그것도 이제 소분하는데, 인체에 안전하게 농도를 낮추고 일정량의 향료를 첨가하고. 가정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소포장하여 제품화 합니다
염소계 표백제는 드럼통이나 커다란 용기로 입고 되죠. 사용할 때 냄새가 지독하니까 향료도 일정량 넣고, 인체에 해가 없게 해서 소포장하여. 집에서 쓸 때는 소독, 표백, 불순물 제거, 청소 이런 데 쓰죠. 우리나라에는 염소계 표백제의 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유한락스 그리고 무궁화의 락스 등 여러가지 락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화학에서도 '락스킹'이라는 상호를 붙여서 한동안 만들었죠.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표백제는 산소계의 표백제하고 염소계의 표백제가 있어요.
'옥시크린'은 산소계의 표백제입니다. 영어로 산소가 '옥시젠' 이거든요.
'옥시젠' 의 옥시하고, '크린'을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니까, 산소 계통으로 깨끗하게 하는 게 '옥시크린'. 염소계 표백제로 사용하는게 '락스킹'. 장단점은 뭐 아시잖아요 옥시크린이나 이런 산소계 표백제는 그 향기나 냄새가 우리가 맡기에 거부감이 없고, 염소계 표백제는 좀 거부감이 있죠. 그런데 염소계 표백제는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조금 저렴하며, 여러분이 집에 있는 상수도 수돗물 소독하죠. 염소계가 들어가서 소독이 되는 겁니다.
그 용도는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산소계의 표백제는 섬유가 손상이 안 되고, 염소계 표백제를 쓰면 섬유가 손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그래서 산소계의 표백제는 물론 공업용으로도 쓰지만, 주로 가정용으로 많이 쓰고 염소계 표백제는 주로 공업용이나 청소용, 소독용으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여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면담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품질 관리 업무도 담당하셨는데 이때 어떤 성과를 얻으셨고 제도 도입에 따른 불만 같은 거는 없으셨는지요.

구술자: 제조업체는 어느 업체나 마찬가지지만 제일 목표가 뭡니까? 많이 생산하고 좋은 제품 생산하고. 많이 생산하는 건 공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나 좋은 제품 생산하는 거는 뭡니까? 순도가 높게 만들고, 불순물이 적게 하고 고순도의 제품을 만든다. 이게 품질 관리 업무죠.
그래서 똑같은 원료를 사용하여 조금이라도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하는 수율 향상, 그리고

조금이라도 좋은 제품으로 하는 그 품질 향상. 그 다음에 인체에 유해한 요소를 제거하는, 이런 업무를 품질 관리 업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품질 관리 업무를 할 때 이제 생산성 높인다. 제품의 품질을 높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료 배합비율, 제품을 만드는 반응, 온도 그리고 반응 속도 이런 걸 관리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시간에 1톤을 생산하는데, 2톤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우리가 제품 생산할 때 99% 나오는데 이걸 100%까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다음에 온도를 100도에서 하는데 80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온도를 20도 더 올리면 그만큼 연료나 열이 더 들어가니까 제조원가가 상승하지요. 그런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품질 관리 업무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데이터를 1년치를 모아서 비교 한다든지, 하다못해 주식을 투자해도 1년 치 과연 어떻게 지나가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장도 그렇게 데이터 관리를 합니다. '데이터 관리'하고 또 일정한 목표를 세워서 그걸 달성하도록 '목표 관리'도 하고, 소규모로 그룹 활동도 합니다. '분임조 활동'이라고 그러죠. 사원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고 제조공정에 반영하기도 하지요. 모든 사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거죠.
그 제도가 '제안 제도'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토론할 때 브레인 스토밍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죠. 뇌에 충격을 가해서 전혀 새로운 생각을 꺼내자.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담으로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주부님들이 집에서 조미료를 쓰죠. 네 팍팍 치죠. 그 다음에 치약 치약을 쓸 때는 이렇게 꼭 눌러 쓰죠. 그런데 조미료 회사에서 조미료를 많이 팔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부들이 많이 쓰게 해야 된단 말이야.
방법이 뭘까, 많이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방법이 뭐냐. 이거 구멍을 키우면 돼요. 쏟아지는 구멍을 조금씩 더 키우는 거야.

면담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구술자: 네. 물론 소비자하고는 관련이 없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쓴다고 소비자들 피해는 없어요. 치약도 마찬가지예요. 쭉 눌러 쓰잖아요. 나온 거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구멍을 조금 키워서 조금 더 나오게 하자. 이런 작업자들의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회사는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원들은 표창도 받고,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뇌가 모르는 생각을 끄집어내자' 그런 게 이제 '분임조 활동' 또 '제안 제도' 이런 활동을 각 회사마다 운영하는데 그 업무를 제가 담당했었죠.

면담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술자: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같은 팀에서 여럿이 같이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추진하는 사람도 팀이 있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조미료 용기 구멍을 키우는 거 평범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구멍 키워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요.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해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더라 이거죠.
여기 제품의 제조 방법을 바꾼다든지 그러면 기존 하던 사람들은 '야 옛날에도 잘 됐어. 이렇게 해도 잘 됐어' 현실 만족하려고 자꾸 그러죠.
제조방법을 변경하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죠.

5. 물류관리 업무를 맡다(00:35:04~00:55:52)

면담자: 그리고 물류 관리 업무도 담당하셨는데 이제 그 물류 관리는 어떤 일인지 얘기해 주세요.

구술자: 물류라는 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보면 수많은 자동차가 다니죠. 물류라는 게 참 범위가 넓습니다. 고체 물류가 있고 또 액체 물류가 있죠. 그고체 물류는 예를 들면 벽돌이다 장작이다 쌀이다 소금이다 이런 거는 고체 물류이고,
그럼 액체 물류는 뭡니까? 액체 물류는 예를 들어서 석유 같은 물질이죠. 물도 물류 물질 중에 하나죠. 물과 같이 용기에 따라서 변형되는 액체 물류가 있고, 가스 같은 게 있어요. 기체 물류죠. 이거에 대한 관리나 취급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양화학에서 유통 물류 중에 '원염', 소금을 원료로 사용해요. 1200톤이면 쉽게 10톤 트럭으로 몇 대일까요? 120대죠. 하루에 그만한 '원염'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매일 120대의 자동차가 수송하는 방법이 아니고, 주로 호주 중국 베트남 이런 데서 화물선 배로 다 실어 옵니다. 그러니까 100톤 200톤 실어온 게 아니고 뭐 5천 톤 만 톤 2만 톤씩 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인천항까지 와서, 인천항에서는 하역을 하겠죠. 인천항에서부터 동양화학까지는 이제 자동차로 실어오는 거죠.
소금이 공장에 입고될 때는. 예를 들어 3만 톤이다. 그럼 몇 대가 들어와야 돼요? 차가 3천 대 정도가 들어와야 돼요. 하루에 못 들어오고 2-3일에 주간, 야간으로 수송을 하죠.
쉽게 얘기하면 주, 야간작업으로. 배는 빨리 물건 내리고 또 가야 되거든. 우리가 계속 잡아 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30여 대 차량이 주, 야간을 쉬지 않고 입고 작업을 하지요. 그래서 공장에 입고되면 3만 톤이 되지요. 3천 대의 '원염'을 갖다 쏟아 부으면 산이 돼요.

소금 산이 그런 정도로 쌓이고. 그럼 국내 소금하고 수입 소금하고 어떻게 디르냐? 첫째 국내산 소금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 국내 소금 생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1년 내 전국에서 생산하는 거 다 따져봐야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동양화학에서 하루 천 톤만 365일 쓰면 얼마야. 국내 생산 갖고는 도저히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소금 가격도 그래요. 국내산 소금이 예를 들어서 뭐 20kg 하나에 만약에 한 만 원을 간다. 그럼 외국에서 수입하면 절반 정도 가격이면 가능합니다.
원래 외국에 광산에서 자연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우리는 태양열 받아서 증류하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지요.
물론 외국에도 태양열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옛날 같으면 우리 석탄 땅에서 파듯이 소금도 그렇게 묻혀 있는 데가 많아요. 광산으로 묻혀 있는 데도 많고, 또 열 온도가 높은 데는, 우리나라에 일주일 걸리는 걸 열대지방이라 하루면 다 마르고. 쉽게 얘기해서 가격도 싸고 염도가 높아요.
우리나라 소금은 집에 갖다 쌓아놓으면 이게 뽀송하지만, 처음에 습기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오는 거는 거의 뽀송뽀송 모래알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양화학은 그 소금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야적되어 있었습니다. 염도가 높아 쉽게 안 녹아요.
그렇게 원염을 그냥 쌓아 놓고, 비가 오면 비 맞고. 물론 동양화학에서는 소금산 주변에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 물을 회수해서 함유된 염분을 다시 사용하지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염전 사업을 보호해야 되니까 수입 '원염'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공업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소금이 하루 약 1200톤 쓰면, 석회석도 하루에 약 1200톤 사용합니다. 다행히 석회석은 국내 생산이 있어요. 많아요. 시멘트 우리나라 많잖아요. 그 시멘트의 원료가 석회석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영월 제천 단양 이쪽 지역에서 석회석을 화물 기차로 동양화학까지 실어 옵니다.
'석회석'도 약 1200톤이니까. 화물열차에는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있어요. 매일 10량 정도의 화물차량이 입고됩니다.
'석회석'도 매일 입고되면 그것도 비축해 놓고 사용하지요. 그 다음에 또 쓰는 게 '석탄'이지요. '석탄'은 두 종류가 있는데 '무연탄'이 있고 '유연탄'이 있어요.
'무연탄'은 옛날에 가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던 '구멍탄'이 '무연탄'이에요.
'무연탄'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그것도 동양화학에서 하루에 한 400톤 정도씩 썼고, 그 다음에 '유연탄'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유연탄은 기름 성분이 좀 많아요. 연소하면 연기가 많이 난다 이거죠. '유연탄'도 매일 천 톤 정도 쓴 것 같아요. 유연탄은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죠. 그것도 똑같이 인천항에 내리면 또 한 트럭 한 30~40대가 24시간, 끝날 때 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에는 소금산, 석탄산, 석회석산,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산이 청량산, 수봉산 이런 정도 산은 아니고, 그냥 뒤 언덕만큼 쌓아 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물, 물을 많이 써요. 그럼 물은 뭐 하는 데 쓰느냐. 소금을 녹여야죠. 소금 1200톤을 녹이면 물이 얼마나 들어갈까. 어마어마하죠. 저도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소금을 물에 녹이고 반응을 하다 보면 열이 나요. 열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냉각수로 사용했지요. 전에 새인천유원지라고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동양화학 앞에 저수지 같은 거 하나 있던 건 기억하시죠? 이곳에 새인천유원지라고, 동양화학 앞바다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동양화학에서 쓰는 물을, 만조시 바닷물이 들어올 때 받아갖고 보관했어요. 또 거기 불순물 찌꺼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조개껍데기도 있고, 이곳에서 침전시켜서 위에 깨끗한 물만 동양화학에서 갖다가 냉각수로 쓰고, 소금 녹일 때도 쓰고 했지요. 바닷물을 저장하고 침전시키는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 저수지가 10만 평 정도의 크기로 있었습니다.

면담자: 새인천유원지 앞에 이렇게 물을 가둬놓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구술자: 예. 저수지에 물을 가둬 놓다 보니까 일반 인천 앞 바닷물이 아니고, 찌끄러기 다 거르고 나면 위에 깨끗하잖아요. 그 물만 사용해서 새인천 유원지를 만들어, 우리 시민들이 수영도 하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동양화학에서 마련했었죠.
그래서 물도 그렇게 많이 사용했지요. 바로 이 물과 같은 물질을 액체 물류라고 하지요. 액체 물류는 어떻게 나를까요? 탱크로리 트럭으로 실어 나를까? 그렇죠. 파이프를 땅속에 설치하고 펌프를 이용해서 수송하기도 하지요. 옛날에는 인천에 수돗물 사정이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수돗물 사정이 안 좋아서 인천 공장에서 물을 많이 쓰니까 어떻게 해요?
보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돗물 풀이, 그것도 상당히 넓고 큰 장소가 있었습니다. 수돗물을 가득 받아놨다가 단수될 때도 공장은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소다회가 하루에 1200톤 생산되고, 염화칼슘, 중조, 인산, 고무의약품, 시약 등 동양화학에서 매일 생산되는 양이 그 중량으로 환산했을 때 약 한 2천 톤 정도 되지 않나 그래요. 그 물건이 하루에 다 출고 되어야 하지요. 원료가 입고될 때 석회석 1200톤 ,석탄이 약 1000톤 또 소금 1200톤. 하루에 사용하는 물동량이 얼마죠? 3천 톤이 넘어요. 입고되는 원료 3천 톤, 출고되는 제품이 한 1500톤에서 2천 톤 그러니까 동양화학에서 움직이는 물류가 하루에 4천 톤이 넘을 때가 있는 거죠.
동양화학에 옛날에 그 기차 화물차 들어가던 건 아시죠? 여기에 수인선이 동양화학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수인선이 송도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전에는 동양화학 앞으로 해서 지나가고, 화물차가 매일 들어왔죠.
하루 한 4천 톤 이상 물동량이 움직이니까 물류 업무가 보통 업무가 아니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겠어요? 어마어마 하죠. 동양화학이 여기 있으면서 공장의 정규직 사원으로 다닌 직원들도 많을 때 약 1000명 가까이 됐는데, 이 물동량을 움직이는 인원들 이거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지요. 남구청(현 미추홀구청)에, 미추홀구의 예산에 약 20% 정도의 세금을 동양화학에서 부담했지 않나. 그런 정도의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추홀구청 자립도가 얼마나 돼요. 한 20% 되나요? 아시다시피 이 주변에 그 많은 공장들 다 나갔잖아요. 학익동에 동양화학 그리고 유공, 한일방직, 동일방직, 한국강관 또 관련 공장들이 상당히 많았다고요. 그 주변에 대우전자. 다 나갔잖아요.
기업체들이 돈 벌어서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세금도 내고 그러니까. 동양화학에서 낸 세금은 지방세만 따지는 게 아니고 국세까지 보면 남구 예산의 한 20% 가까이 되지 않았나 라고 알고 있습니다.

면담자: 소다회는 다양한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 소비처하고 활용도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술자: '소다회'라고 하면 참 사람들이 어색해 해요. 잘 모르죠. '소다회' 즉 '탄산나트륨'은 화학명으로 Na2CO3로 표기하고 우리생활에서 필요한 화학 공장의 모든 제품에 들어가요. 그래 화학공장에 조미료라고 그럽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유리, 판 유리. 지금 아파트 얼마나 짓습니까? 또 자동차도 얼마나 나와요? 판 유리, 자동차 유리 그 다음에 병 유리. 소주, 맥주, 음료수 병. 그리고 박카스 같은 제약제품용으로도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원래 유리의 주원료는 규사예요. 우리나라 유리 공장에도 전부 규사를 쓰는 거예요. 규사에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소다회를 사용합니다. 규사가 어디 있어요? 전부 수입합니다. 규사도 불순물이 적고 품질이 좋은 규사는 호주, 베트남, 중국 등에서 수입합니다. 외국에 규사를 수입하므로, 고가여서 우리 아파트값 올라가게 되죠. 그 규사에 포함된 불순물 제거 이런 데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그 제련소 철 제련, 중석 제련. 여기도 불순물이 많잖아요. 그 불순물 제거하는데 소다회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쓰는 세제, 즉 비누 종류에도 소다회를 많이 사용합니다. 나트륨 성분이 여러 가지 세탁하는데 사용되지요.
여기서 세탁, 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소다회가 있고, 또 가성소다라고 들어보셨죠? 가성소다가 있어요. 두 가지 다 나트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상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가성 소다는 25% 35% 40% 50% 있어요.
가성소다가 덩어리도 있잖아요. 액체로 물에 이렇게 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양화학

생산되는 소다회는 분말 형태로 되어있고 두기지 제품이 세제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세탁용 세제로 많이 사용하고, 유리 공장들하고 제련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제조할 때 이용을 하지요. 여러분 소화제 가끔 드시죠?
소화제는 소다 회를 가지고 한 공정 더 거친 걸 '중조'라 그래요. 식소다. 다시 말해서 '탄산수소 나트륨'. 그 제품으로 가지고 소화제 만들고 있지요. 그 외에 섬유회사에도 섬유유연제로 소다회를 많이 씁니다.

배석자(박인옥): 베이킹 소다하고 좀 다른가요?

구술자: 베이킹 소다 제조는 공업용 제품이 아닌, 제약용과 같이 식품첨가용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먹어도 되는. 일반적인 독성이나 위험성이 없어서 성격이 조금 다르죠. 베이킹 소다는 주로 제품 중에 CO2라는 가스성분을 이용하지요.
CO2 성분을 이용하여 밀가루 같은 제품을 부풀리는 용도로 주로 쓰고, 그러니까 조금 활용도가 다른데, 소다 성분이 들어간 건 똑같아요.
소다가 나트륨, 이 제품을 이쪽에 붙였느냐 저쪽에 붙였느냐, 어느 부분을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6. 환경안전 업무을 맡다(00:55:53~01:14:20)

면담자: 그리고 환경안전팀의 구체적인 업무는 어떤 것이었나요?

구술자: 환경업무. 지금은 저 환경 안전 업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전에는 웬만큼 오염돼도 제품생산이 우선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 부분에서 유해 요인이 있으면 일체 공장 생산도 못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집에서 밥을 하다 보면 밥솥에 수증기 나잖아요. 공장에서 수증기 나도 저거 공해라고 신고하는 사람 많아요. 요 옆에 제일제당, 설탕 공장 있잖아요. 거기도 그냥 수증기가 나오면 '이거는 수증기입니다.' 하고 써 붙여 놨지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이거 여담이지만 집에서 밥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은 밥이 덜 익고 어느 날은 너무 질어지고 그렇 수 있지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물리적인 제품생산은 형체만 바꾸고 물질의 본질은 안 바꾸거든요. 근데 화학반응은 A, B 두 물질을 넣어서 반응하면 전혀 다른 물질인 C가 나오는 거죠. 형체도 바뀌지만 성질도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하는 과정이 온도나 압력, 배합 비율, 그리고 작업시간에 따라서 수시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무해한 수증기 같은 것도 나오는데, 우리 인체에 좀

유해한 물질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런 업무가 환경관리 업무인데, 제일 많이 배출하는 물질은 사용하고 버리는 물, 즉 폐수. 제품 생산하고 남는 부산물이나 찌꺼기, 즉 폐기물, 그 다음에 대기로 나오는 가스 같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물질.
이게 전부가 아니고, 소음도 공해예요. 그 다음에 진동.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수, 대기 가스, 폐기물, 소음, 진동, 이런 유해 요인이 배출되면 안 되지요. 배출되는 요인이 환경이나 사람한테 유해하면 안 되잖아요.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어서 우리 근로자나 주민들한테 건강에 유해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주고. '이번에 공장을 돌리다가 반응이 조금 잘못돼서 이런 가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애기도 하고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각 대형 큰 공장들의 폐수가 나가는 폐수 배출구나 대기로 배출되는 굴뚝같은 곳에 각종요인이 자동으로 체크되는 게 있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인천광역시에 송부가 돼요. 24시간 시청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기록되고 확인을 하죠.
물론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폐수가 과량 나와서 그냥 막 넘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때는 사후 수습, 사후 관리 하는 게 환경 관리 업무죠.
그러니까 주변 주민들하고 종업원들 건강도 생각하고, 그 종업원들이 자기 건강이 먼저지 회사 생산이 먼저입니까? 밖에서 주민들이 '야 저거 공해야' 하기 전에 종업원들이 더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유해 가스 나오면 내가 죽어. 그 가스 맡고 있을 종업원이 있겠습니까? 절대 거기 안 있죠.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더 신경 쓴다 이거야.
밖에서 주민들이 '야 저 굴뚝에 연기 나오는 거 봐. 저거 봐.' 근데 매연도 나오지만, 겨울에는 온도 차에 의해서 수증기도 나오거든요.
종업원들이 더 신경 씁니다. 거기서 유해가스 나와 봐, 내가 그거 맡고 있겠나. 아무리 돈을 준다고 그래도. 요즘은 주민들이 환경 제일 많이 관심 갖죠. 안전 문제에 또 관심 많이 갖잖아요. 물론 조심하고 잘해야죠. 완벽하게 해야지요. 요즘도 신문이나 방송에 가끔 보시지만 안전사고가 나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많아요.
일반 제조업체에서는, INTER LOCK 시스템이라고 비상 정지 시스템이 설치 돼 있어요. 작업자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공장전체가 다 정지되지요. 어느 공장에서 사람이 죽고 다쳤다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가고 장관도 가고 막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갔다 오면 흐지부지되는 이유가 뭐냐. 회사에서 로비해서 흐지부지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시설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시설이 오작동도 있는데, 종업원들이 그걸 안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쪽에서 이상이 있다' 그럼 정상적인 통로로 돌아가야 되지만 급하니까 뛰어 넘는다고. 그러다 보면 사고 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고 안전한 통로로 돌아서 가라고

매일 작업 시작 전에 교육을 합니다. 그래도 근무하다 보면 '아 저거 내가 가서 조치하면 될 것 같은데' 훌쩍 뛰어넘는다든지 직선으로 가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지요. 근무자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작업자가 정상 통행로로 통행하다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어디에서든지 비상벨을 누르면 공장이 다 서요.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아무리 국회의원들이나 높은 분들이나, 뭐 환경단체, 안전단체에서 가서 봐도 회사는 안전설비를 정상으로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얘기한 대로 오작동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기계니까 오작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정전도 많이 되었지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
오작동, 그리고 작업자의 부주의.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부주의에 의한 사고도 많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상 통행로로 돌아가면 되는데, 빨리 가고 싶거든요. 그런 거 관리하는 게 생산하는 것보다 더 어렵죠.
그래서 옛날에는 생산 제일로 공장을 운영 했지만, 지금은 안전작업, 환경오염 방지로 우리나라 제조업이 거의 그렇게 바뀌었죠. 하다못해 그 아파트를 짓더라도 먼지라도 밖으로 나올까 봐, 돌이라도 밖에 떨어질까 안전펜스 다 치잖아요. 그 안에서만 작업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돌이 떨어져서 맞아서 죽어도 되느냐 아니지요.
작업장에도 안전 시설 다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다니는 통로 따로. 근로자가 출근하면 제일 먼저 안전 교육실로 들어갑니다. 안전 교육을 시키고 하다못해 구호도 외치고 그래 갖고 현장 들어갑니다. 복장도 확인하고, 소리 나는 데는 귀마개 했느냐. 좀 먼지 나는 데는 보안경 꼈느냐, 안전보호구 꼈느냐. 작업 전 안전화 신었느냐, 하다못해 여기 장갑은 꼈냐. 이거 다 확인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안전, 환경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면담자: 그리고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셨고, 주민들하고 상호 신뢰를 어떻게 많이 쌓으시면서 문제들을 해결하셨는지요.

구술자: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었죠. 옛날 저희가 있을 때는 기업에서 안전이나 환경 문제 조금 등한시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한 30~40년 전. 이때는 조금 등한시했죠.
그때 저도 그 주민들과 공장 옆에 같이 살았어요. 30년 40년 같이 살았어요. 냄새 난다고 데모하러 가면 그 옆에서 봤죠. 토지금고 아시죠? 용현5동 거기 살았는데 냄새나면 저 동양화학으로 데모하러 가는 거죠.
냄새 어디서 나느냐, 연안부두에서 많이 오지요. 바닷바람이 해안 쪽에서 내륙 방향으로 불어오니까 동양화학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내륙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 그게 아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서 주민 모임에 참석하는 거예요.
난 여기 주민이고 나도 너하고 똑같다. 학익동 용현동 주민들은 '공해', '동양화학 공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을 공장에 초청해서 '봐라 이런 게 공장이다.' 보여주고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생활하고. 또 그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지금이야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만 하면 딱딱 많이 해주잖아요. 그 당시엔 서로 바쁘고 예산도 부족한 게 있었어요. 큰 거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건 같이 하고, 회사에 협의해서 해줄 수 있는 문제는 또 같이 하고. 또 하다못해 토요일 날, 그때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잖아요. 토요일 날 오전에 직원들 데리고 나와 동네 청소도 해주고, 쓰레기도 치워주고.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생색내기지만 그렇게도 해주고.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기면 나무도 좀 사다 심어주고. 많은 건 아니지만 한 1년에 한 10그루 20그루 정도 사다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하나는 제가 동네에서 통장도 오래 했어요. 주민들하고 동사무소에서 만나서 소통하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데도 가입하고, 하여튼 열심히 주민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했죠. 주민들이 데모하라고 하면 또 같이 가서 참여하고, 한 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순수하게 진짜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보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이상의 목적을 갖고 자꾸 하면은. 뭐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많죠.

면담자: 옛날에는 남구청이었잖아요. 지금은 미추홀구청이지만. 남구청 지역경제과 공무원하고 교환 근무를 하셨는데 그 당시 되게 드문 예였거든요. 교환 근무 하는 게 획기적인 발상이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걸로 인한 성과나 효과가 있었나요?

구술자: 지금은 그게 없죠. 그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물론 효과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기 직전이에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이 자치적으로 살아가자. 자립도를 높이자. 그걸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우리 동양화학에서 제안한 건 아니고, 구청에서 제안을 했죠. 정부 차원에서 제안을 해서 각 구청이나 시청의 재정 자립을 높이고, 국가에 기대지 말고. 그런 제도를 한 번 운영을 해 보자고 했어요.

그때 남구에서는 동양화학하고 대우전자 제일 컸어요. 그래서 동양화학은 생산성, 경제적인 면에 담당 한 사람, 대우전자에서는 서비스 관련된 분야의 사람. 이렇게 해서 둘이 구청에 교환 가고, 구청에 있던 분이 저희 동양화학하고 대우전자에 가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3개월인가 했어요.

그 첫째 목적은 기업은 돈 버는 방법을 구청에 좀 전해주고, 대우전자에서는 대민 서비스하는 걸 구청에 전해주고. 구청에서 가서 배워라 그런 취지에서 서로 교환근무를 했죠.
그런데 시범 사업만 하고 끝나니까 문제 해결이 지속적으로 안 되죠. 아마 그 후로는 그 제도를 시행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한 두 번 얘기가 돼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구청은 공무원 사회의 규정과 규칙이 있습니다. 제조업체와는 서로 다른 문화가 있지요. 구청은 예산이 있으면은 이게 효과가 있건 없건 무조건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기업은 예산이 있어도, 시대가 바뀌고 검토해 봐서 필요치 않으면 과감하게 안 합니다. 관공서하고 기업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관공서는 그 예산 안 쓰면 이것도 징계감이야. 또 하나는 기업은 참 돈 알기를 무섭게 알거든요. 돈 만 원을 써도 최소한 도장을 10개 이상을 받아야 써요.
근데 구청에 가보니까 예산만 있으면 과장 전결이야. 다 전결이더라고. 그러니까 예산 책정만 되면 쓰기가 쉬운 거야. 안 쓰면 징계 받아요. 그런데 기업은 아무리 예산이 있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럼 과감하게 접어. 안 해요.
기업체는 수익성 사업을 기본으로 시행하지요, 공무원 사회는 물론 주민을 위한 사업을 기본으로 하지만, 책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이 기본이지요. 구청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물론 그분도 동양화학에 와서 보고 느낀점이 있겠지요. 큰 회사가 돈 만 원 쓰는데 이렇게 도장을 열 개 스무 개 받는다. 의아하다 생각 했고, 나는 '아무리 예산이 있어도 효과가 없는 걸 왜 시행하나.' 하는 문제를 지적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탁상공론으로 끝나고 만 거예요.

7. 삼광유리와 IMF 위기(01:14:21~01:19:49)

면담자: 삼광유리는 동양화학 계열사인데 관리 업무를 맡게 되셨어요. 관리 업무를 맡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 해 주세요

구술자: 삼광 유리가 원래는 동양화학 계열이 아니었죠. 삼광 유리 경영에 동양화학이 참여하고 계열사가 되면서 동양화학 직원들이 많이 삼광유리로 갔고, 체질을 동양화학 쪽으로 바꾸게 됐죠. 그때 삼광 유리가 크게 주도권을 잡는 대주주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회사라는 개념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삼광 유리에 몇 자리를 동양화학 직원으로 발령내고, 그렇게 동양화학 그룹으로 편입을 시키는 거죠. 통근버스도 삼광유리랑 동양화학이 같이 운행하고. 제가 관리팀장으로 가게 됐는데.

면담자: 골칫덩어리를 떠맡은 기분

구술자: 노동조합 활동이 많고, 조합원이 많고 그런 구조였죠. 조합원들하고 회사와의 대화가 부족했죠. 제가 차출됐는지, 뽑혔는지, 아니면 떠밀려 갔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근무를 한 2년 했습니다.

면담자: 1997~8년쯤에 IMF가 터졌잖아요. 그때 삼광 유리가 어려웠다고 많이 들었어요.

구술자: 많이 어려웠죠. 삼광유리는 주로 쓰는 원료들이 전부 수입품이지요. 규사, B-C유, 액화 가스. 다 수입해서 규사를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한 후 유리병을 제조하지요. 병 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원료가 하나도 없어요.
IMF가 외환 위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외화가 없으니까 외국에서 물건을 안 주잖아요.
무조건 현찰. 삼광유리가 그 능력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규사나 연료, 특히 소다회도 많이 쓰거든요. 그거를 동양화학에서 지원해줬죠. 소다회 같은 원료는 물건 보내고 돈을 계속 안 받는다든지. 동양화학도 전부 수입해서 만드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외환 위기 탈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다회도 서로 좀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 원료를 동양화학에서 지원해 주고, 공짜로 준 건 아니지요. 단가를 동결 한다든지, 아니면 결제 기간을 길게 해 주고. 규사도 동양화학에서 대신 수입해서 삼광유리에 주고. 그러다 나중에는 동양화학이 그걸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주식으로 전환한 거죠.
동양화학의 주가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점점 동양화학의 발언권이 세지고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 바람에 회사가 살아나는 데 제가 좀 도움을 줬다, 그런 역할을 좀 했죠.

8. 동양화학과 함께 해온 삶의 소회(01:19:50~02:08:20)

면담자: 동양화학과 삼광유리 관리자로서 오랜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위기나 난관에 처했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구술자: 어느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너 왜 일을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그럼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요. 선배의 말씀이 '거짓말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일하지. 무슨 자네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돈이라도 한 푼 더 받으려고, 진급이라도 조금 빨리 하려고 열심히 죽으라고 일 했다는 점을 알았지요. 진짜 내 속마음하고, 겉으로 표현하는 마음이 달랐던 거죠.

제가 삼광유리에 가서 종업원들 앞에서 '야 우리 회사가 많이 어렵고 힘든데, 일하자. 일하자.' 이렇게 외치니까, 한 직원이 거나하게 술 한잔 하고는 '저는 회사가 하라고 그러면 절대 안 해요. 노조가 하자고 그러면 해요.' 간부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회사를 신뢰 안 한 거죠.

종업원들이 회사의 설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간부사원은 그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회사에서 하는 말이 그동안 공수표가 많았다는 얘기야. 종업원의 의견을 듣지 않는 시대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1997년, 1998년 이때 아닙니까?

동양화학만 해도 얼마나 머리 좋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많은데요. 전 시골에서 조그마한 전문대학 5년제, 그 당시에 5년제 전문대학이 있었는데 아시는지 몰라, 모르실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고 5년 동안 다니는 학교야. 당시에는 상당히 희귀성이 있고 특이하고 아주 경쟁력이 있는 학교였어요.

한 학급에 30~40명 뽑아갖고, 한 학년이 4학급에 150명뿐이 안 돼. 전교생이 750명 정도. 5년 동안 전문 교육을 시키고, 국립이라 국비로 다 해주고. 충주에서 다녔는데 동양화학만 해도 서울대 졸업생도 있고 연세대, 고려대, 인하대 출신 등이 있고, 촌놈인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다. 또 가진 것도 별로 없다. 시골에서 그냥 딸랑딸랑 뭐 손가방 하나 들고 올라왔다.

직장 생활하기에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세요? 직장 생활하기 제일 편한 거는 돈이 좀 많은 사람이야. 월급 신경 안 써.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진짜 돈 많으면 제일 편하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혈연이지요. 그 당시에 혈연은 절대 안 잘라, 어려운 거 안 시켜. 안 한다고 그러면 다른 걸 시켜. 혈연이죠. 세 번째가 학연이죠. 서울대 출신, 연대 출신, 고려대 출신, 그리고 인하대 출신 등등. 난 거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는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건강한 몸 하나야. 저도 화학공학을 학교에서 좀 배웠는데, 동양화학에 와서 화학공학 분야 근무보다는 새로운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이 훨씬 많았지요. 전부 새로운 사업. 힘들고 남이 안 하는.

직업 훈련도 전담선생이 나 혼자 였지요. 제가 운영하고 가르치고. 전문적인 건 직원들 불러서 했지만. 그리고 '물 먹는 하마' 할 때도 남자 직원 한 두 명 있고 약 100명이 주부 사원 이였지요. 이런 업무가 화학공학과 무슨 상관이 있어, 물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류 업무에서 여기서 쓰는 건 덤프트럭이거든요. 비씨티카는 아십니까? 시멘트나 이런 거 싣고 다니는 둥그런 차 같은 거 비씨티 카, 시멘트 수송하는 레미콘 차, 그리고 유조차 탱크로리 등등. 자동차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죠.

제가 물류를 하다 보니까, 군산공장에 가서도 물류업무를 했지요. 군산공장에 물류는 액체물류에요. 액체물류 수송을 위해서 울산공단, 또 여천공단 가서 공부했지요. 인천공장은 원료, 제품이 전부 고체 제품 물류이고, 군산공장 원료와 제품 전부 액체물류지요. 드럼통 작업, 탱크로리. 거의 액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액체 물류 작업을 또 새로 배워야 되는 거야. 드럼통을 밖에 햇빛에 놔둬도 괜찮으냐? 세워 놓는 게 맞느냐? 누여놔야 되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물류업무, 또 관리 업무에서 인간관계 하는 게 화학공학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야 저놈 시키면 할 수 있어. 해봐. 시켜봐.' 그럼 또 가서 하는 거죠.
나는 가지고 있는 거 건강한 몸 하나, 해야겠다는 마음 하나. 이 두 가지를 갖고 열심히 몸으로 뛰었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동양화학에 입사하고, 삼광유리에서 퇴직한 후 소사장제 노무 관리운영을 포함해서 47년이 되네요.

면담자: 그리고 동양화학의 인천 공장 자리가 사라지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동양화학은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구술자: 제가 78년도 10월 21일에 왔으니까 올해가 47년째거든요. 아직도 이곳에 사는 거야. 학익동, 용현동 동양화학 옆에서 동양화학과 함께.
그 옛날 전해지는 말씀에 그런 게 있죠. 10년이면 강과 산이 변한다고. 그거 맞습니까? 제가 볼 때 벌써 47년 지났으면 강과 산이 다섯 번 변하는 거야. 진짜 우리가 왔을 때는 동양화학 그 앞에가 전부 풀밭이었다고, 거기서 예비군 훈련 받았거든. 공장 앞에서.
동양화학 공장을 건설하기 전에는 새해 바다와 인접 했었고, 그리고 수인선 기차나 버스도 지금 저 동양화학공장 내부까지 거쳐서 지나갔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동양화학이 내 젊음을 다 뺏어갔나?' 아니면 좋게 이야기하면, '동양화학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고 살았지. 아이들 키우고.' 물론 내가 얻은 것 보다 잃은 걸 더 크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지금 인천역에서 동양화학을 지나 수인선 기차가 다니잖아요. 내년 말이면 송도역에서 KTX가 출발한다고 하고, 지금 경기도 동쪽 방향으로 가려면 지하철도가 수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공사하는 월곶에서 판교까지. 29년이면 지하철도가 또 가요. 월판선 이지요.
그런 거 보면 '야 진짜 지도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구나.'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거울을 한번 봤다니까요. 거울을 보니까 거울에는 반채진이가 아니고 웬 노인이 나를 보고 있어, 웬 노인이 나를 보고 있어. 젊음을 동양화학에서 빼앗아 간 건지, 내가 바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다 빼고 보면 나를 위해 살아온 거야.
나를 위해서 살아온 거야. 이제 지도가 바뀌는 거 보고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는 나를 등지고 씩씩하게 떠난 두 자식뿐이 없구나.

면담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 구술 기록 인터뷰 한게 어떻게 활용되기를 바라시는지요?

구술자: 저는요. 이런 기회 준 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이런 기회가 나한테 왔다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조그마한 일들이, 여러 사람들의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으면 그게 전부죠. 이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또 불러주세요.

면담자: 저희가 더 감사하죠.

구술자: 별 말씀을. 제가 지금은 나이도 있고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편해요.

면담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아시는 분이 사무직, 그러니까 연구 쪽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는 급여가 되게 박했대요. 선생님도 사무 관련 쪽에서 근무를 하신 거잖아요. 혹시 관리직하고 현장직의 급여 차이가 어느 정도 났었는지 알려주세요

구술자: 차이가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관리직들보다 현장직이 급여가 훨씬 많습니다.
그 당시 연구직에 근무한 직원은 주간에만 근무하니까 연장수당이 적었지요.
지금은 물론 전 사원이 연장근무수당이 적용됐는데, 그 당시에는 관리 사무직은 연장근무수당이 없었어요. 급여가 월정액으로 책정 되었지요. 현장 사원에게는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었지요.
공무원들도 견학을 많이 와요. 근데 이분들은 언제 오냐, 토요일 오후에 와요 서울에서 근무 끝나고. 그럼 회사에서는 공장 견학도 하고, 회사 홍보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저희 때는 관리직 급여가 월정액으로 책정되어 연장수당이 없어요. 월정액. 그러니까 일요일이나 휴일에 출근을 해도, 업무차 출장을 가고 밤늦게 와도 특별히 수당 없었어요.
제가 동양화학에서 처음 전산 컴퓨터를 도입해서 작업을 했지요. 컴퓨터 작업을 하려면 자료를 입력 해야 되잖아요. 급여 계산, 자재 업무 등. 이 업무를 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면 잘 안 줍니다. '이 사람 자료 인사비밀이야.' '내 자료야.' 하며 자기 업무를 빼앗기는 것 같이 느끼지요.
현장 직원들의 잔업 시간, 몇 호봉 다 계산해야 되는데 6시 쯤 퇴근할 때 줘요. 내일 아침까지 작업해 달라 이거야.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었어.
그러니까 자료 싸가지고 서울 본사에 가서 밤샘 작업을 하지요.

지금은 뭐 개인 PC가 있잖아요. 그때는 메인 전산실에서 작업을 했어요. 지금같이 개인용 PC가 보급되기 훨씬 전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자료들이 필요하지요. 사원들이 다 퇴근해야지 전산을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땐 밤새우고 오는 게 여러 번 있죠. 그럴 때 연장수당, 야간수당이 관리직 사원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제가 아들이 태어 낳았을 때도 서울 출장을 같었지요. 출장수당 없이 다니며 근무했지요.

저는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연장수당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요.

삼광유리에서도 노동조합원들하고 밤새 술 마시며 설득하고, 조합원들 이해시키는 방법은 술 마시며 대화해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두 벗어서 탁자에 놓고 술 따라서 내가 먼저 마시고, 너도 마셔라 너 못 마시면 나한테 진 거야. 그거 많이 했어요. 지금은 상상도 안 가죠. 그땐 그렇게 토론하며 싸움도 하고, 우리 같이 가자 또 서로 어깨도 맞대고, 어깨도 안아주고 했지요. 다음 날 가면 본인이 그걸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사십 몇 년 근무하면서 연장근무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현장들은 다 받죠. 그러니까 기본급이 조금 낮게 책정되었어도 수령하는 금액은 더 많이 받았지요. 엊그제 우리 큰 놈이 정기 휴가를 유럽지방으로 열흘을 가기에 '너 회사에서 잘렸냐?' 물었더니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오랜 기간을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작년에 공장을 증설하느라고 주말도 없이 휴일도 없이 근무를 했대요. 그거 수당을 안 받고 금년에 2주 휴가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라도 보상을 해주는데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연구직도 두 종류예요. 연구직에도 우리 같이 관리직이 있고,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은 연장수당을 줬어요. 연장근무시간이 적으면 수당도 적었지요.

옛날에 동양화학에 근무한 사람은 내가 다 알지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알고 싶지 않고, 제도가 그랬다 이거죠.

요즘은요. '야 오늘 고생했으니까 저녁 먹고 가자.' 그러면 젊은 사원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 현찰로 줘요.' 또 하나는 '그러면 나 내일 오전 쉽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저도 회사에서 이리직으로 사람을 뽑으려고 보면은 전부 대학 출신이야. 지금은 다 대학 출신이야. 성적을 보면 전부 A등급이거나 혹은 B등급이지요. 성적으로 구분 못해요.

'너 여기 동양화학을 어떻게 알고 왔어?', '나 인터넷 보고 왔는데요.' 또는 '교수님이 가보라고 그래서 왔는데요.'. '그럼 여기서 뭐 할 거야?'

'시키는 대로 해야죠.' 이게 대답이야. 그래서 저는 '너 그럼 떨어진다.

100% 떨어진다. 내가 생각할 때는 취업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다.' 뭐냐 동양화학에 오면 동양화학을 공부하라고 해요.

동양화학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잘 몰라. 자동차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 동양화학에서 소다회 나오는데, 지금 이런 방법인데 저는 이걸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말만 하면 금방 합격이야.

자동차 회사 들어갈 때 '나는 날아다니는 자동차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이러면 합격이에요. 왜 자동차가 땅에만 다니라는 법이 있습니까? 브레인스토밍. 뇌를 깨버려요. 그러면 합격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우리 엄마가 안 가르쳐주는데.' '교수가 안 가르쳐줬는데.'

지원자: 그때 첫 번째 배치된 부서 명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구술자: 직업훈련소 겸 생산관리과. 그렇게 길었던 거예요.
이름이 직업훈련소. 이제 조직은 직업훈련소 다르고 생산관리과가 다른데, 나는 양쪽에 겸직을 하는 바람에. 훈련은 아까 말씀드린 6개월 정도만 하고 6개월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관리에서 홍보 업무나 품질 관리 업무를 했지요.

지원자: 그게 생산 관리

구술자: 그렇죠. 생산 관리가 요즘은 이름이 품질 관리로 바뀌었어요. 옛날 같으면 생산을 위주로 생산 관리 팀인데, 생산 관리에서 생산 관리와 품질 관리 업무를 했는데 지금은 이름 자체가 품질 관리로 바뀌어서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업무를 하죠. 점점 그런 추세죠.

지원자: 세분화가 되는데 옛날에 한꺼번에 묶여 있었다. 저도 구술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신입직원들이 직업 훈련을 하지만, 관리자분들도 따로 공부를 하셨다고, 특히 어학 공부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술자: 네 그거 있죠

지원자: 그거 하셨던 기억이 있나요?

구술자: 예. 그럼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뭔지 알아요? 영어 시험 보는 거. 그때 동양화학도 1년에 한 번씩 꼭 영어 시험 봐요.

지원자: 그때 입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구술자: 그렇죠. 한참 후에 시작했는데 직급별 교육도 하고, 예를 들어 과장 되면 과장급 교육하고, 계장 되면 계장급 교육하고, 부장 되면 부장급 교육하고. 그게 직급별로 교육이 다 하고 있었구요. 신입사원 되면 신입사원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물류 관리

교육도 하고 또 생산 관리 교육, 인사 관리 교육도 하고. 그게 기업마다 부서마다 다 따로 합니다.

지원자: 근데 제가 인터뷰 한 분은 새벽 6시 반에 출근을 해서 영어 공부, 일어 공부 이렇게 시켰다고 회사에서.

구술자: 네. 회사에는 사원 각자의 발전을 위해서 평소에도 출근 전 아침시간이나, 점심시간. 그리고 퇴근 이후에도 영어, 일어, 중국어교육을 하지요. 본인이 선택하여 참여하고, 강사는 회사에서 초빙합니다. 동양화학 뿐이 아니고 기업들은 그거 다 합니다.

지원자: 필리핀 갈 때 그런 홍보 책자 만든다고 하셨을 때, 도움이 되셨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였고요.

구술자: 제가 필리핀에 간 것이 아니고, 영문 슬라이드를 제작할 때 물론 도움이 됐겠죠. 그러나 저는 원래 영어 실력이 좋지 않아서, 제가 제일 싫은 게 1년에 한 번씩 영어시험 봤거든요. 토익을 1년에 한 번 씩 봐서 시험 결과를 진급에 반영하곤 했지요.

지원자: 너무 괴로우셨겠다.

구술자: 재미없죠. 동양화학은 나 퇴사하고서 통상 대화를 영어로 해라 그런 적도 있었어요. 현장에서 올라온 과장도 있잖아요. 미치는 거지.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없어졌죠. 지금은 회사에서도 영어, 일본어 교육하는 게 많이 줄었지요. 이제 각자 알아서 공부하고 있지요. 지금도 여러 기업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시험을 봐서 외국어 점수를 회사에 제출 하도록 하지요. 토익이나 토플. 회사에서 규정한 점수가 되면 다음 해부터는 면제가 되지요.

지원자: 정말

구술자: 스트레스죠. 그런 게 기업은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상대하려면 영어로 하든지 중국어 하든지. 우리말만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지원자: 품질관리팀이랑 교육을 했던 그 연도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구술자: 입사에서부터 제일 오래 있던 부서가 품질 관리 부서예요. 직업 훈련하면서 같이. '물

먹는 하마’ 생산하기 전까지는 품질 관리 팀에 있었지요.
그런데 기업은요. ‘물 먹는 하마’ 만들어도 품질 관리 안 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 품질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생산 관리해야 되고. 물류팀에는 물류에 대한 품질 관리가 있지요.

지원자: 그런 식으로.

구술자: 그럼요. 물류에 대한 품질 관리가 뭡니까? 물건을 조금이라도 상하지 않게 하는 거. 인천항에서 부두에 내렸잖아요. 자동차로 소금 싣고 오다 보면은 거리에 쭈르르르 흘리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원자: 그런 것도 관리해요.

구술자: 당연하죠. 그러면 내가 빗자루로 쓸어야 돼요. 시민들이 난리가 나요. 동양화학에 이거 오염 시켰다고, 어느 부서에 어느 일을 하든지 품질 관리는 다 하는 거예요. 파트 이름만 다르죠. ‘물 먹는 하마’를 만들면서도 어떻게 불량 안 나게 더 잘 만드느냐. 어느 파트 어느 부서나 품질관리업무는 합니다.

지원자: 품질 관리를 하려면요. 다른 부서랑, 예를 들면 공무 설비 관련한 공무 부서라든가, 만들어내고 연구하는 연구팀이랑 계속 긴밀하게 이야기를 많이하셔야 했을 텐데요.

구술자: 네 맞습니다. 어느 부서나 다 똑같습니다.

지원자: 어떻게 소통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술자: 친한 사람은 구두로도 하고, 예산이 들어가든지, 절차가 까다롭다든지, 안전 등에 문제 있을 것 같으면 서류로 하죠. 서류로 문서로 연락하죠. 그거는 공유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 친한 친구가 공무에 있으면 ‘야 이것 좀 해줘.’ 간단한 건 해줘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은 (서류로 소통하죠). 그분도 작업 일지 작성 해야 되니까.

지원자: 아까 ‘구멍을 키우면 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건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구술자: 제안 제도는 공장에 우편함 같이 접수함을 만들어 놔요. 아니면 구두로나 유선으로 해도 되고, 간단하게 써서 내기도 하고. 조미료 구멍은 전 사원 강당에 모아놓고 ‘야 회사

망하게 생겼다. 어떻게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한 여직원이 저 구석에서 '구멍을 키워요.' 이래서 처음에는 깔깔깔 웃고 만 거야.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게 맞거든. 그래서 표창하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유머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다 이거야. 요리하면서 조미료를 칠 때 구멍이 크면 팍팍 많이 나오잖아. 그럼 잘 팔릴 거 아니야 많이 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원자: 거래했던 물류량이 많았던데요. 거래하는 물류 회사가 따로 있었던 건가요? 동양화학에 소속되어 있었던 건가요?.

구술자: 대개 전문회사에서 따로 하죠. 조그마한 회사는 직영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갖다 주고 하는데, 동양화학 정도 되면 거의 다 물류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만약에 한 달 내내 하면은 1톤에 만 원씩 주겠다. 서울은 만 원, 부산은 3만 원. 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거지요. 물론 동양화학도 소량 제품은 자체차량으로 공급하기도 하지요.

지원자: 위탁을 맡긴거네요.

구술자: 그렇죠. 위탁.

지원자: 한 군데랑 한 건 아니고 여러 회사랑.

구술자: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물건은 위탁 줬어도 결국 책임은 화주한테 있어요.

지원자: 화주가 동양화학이었던 거죠.

구술자: 물론 수송하는 사람이 가다가 손실하면, 물건 값을 수송하는 사람이 내야지.
그런데 그 물건을 손실하면서 주변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염산을 가다 흘렸다. 기름을 흘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책임은 동양화학에 있는 거죠. 그러나 물건값은 그 사람이 부담해야죠. 물건값은 물론이고 자동차 부서지면 자기보험이나 이런 부분으로 처리를 해야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책임이지요. 개인 책임인데 관공서 등에서는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니까, 책임을 관리할 수 있는 화주한테 책임을 묻게 되지요..

배석자(박인옥): 선관 공사가 가장 큰 물류업체라고 했는데.

구술자: 그렇죠. 예. 선관 공사가 하역부터 동양화학까지 가져오는 일을 거의 맡아서 했죠. 전문 회사가 있어요. 육상 운송 전문가, 해상운송 전문가, 철도운송 및 하역 전문가. 모든 부분에 전문가가 있지요.

지원자: 마지막인데요.

구술자: 천천히. 열 개 더 해도 돼요.

지원자: 제가 그 지역 주민을 만났는데 제 또래거든요. 어린 시절에 동양화학 후문의 경비 초소 옆에 이렇게 파란색 천으로 덮어 놓은 산에서 미끄럼 타고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구술자: 뭐 그런 적 있죠.

지원자: 소금산이에요? 산이 여러 종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산들이 대부분 소금산인지요?

구술자: 그건 모르죠. 공장이 넓고 원료나 제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여러 군데 있였죠. 지금 했다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원자: 그러세요?

구술자: 옛날에는 공장 주변에 못 살게 하고 떨어져서 살게 하잖아. 동양화학에 공장이 생기니까 전부 옆에 와서 사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불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살면서 공해라고 큰소리 치고.

지원자: 그렇네. 결국엔 그 사람이 살면서 거주지가 돼버렸네요.

구술자: 그렇죠. 동양화학 주변 학익동이고 뭐고 이거 전부 벌판이고 산이었어요. 지금 도시가 됐잖아. 동양화학이 오는 바람에. 물론 다른 회사들도 왔지만 원래 동양화학이 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회사들도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냄새나고 뭐 하고 그러면서 동양화학만 지적하고 공격하거든. 그래서 주변에 한국 농약이나 다른 회사에서 냄새나는 건 잘 몰라. 동양화학 냄새야. 그런 식으로. 옛날부터 부잣집 옆에 가면은 뭐 얻어먹어도 3년은 먹고

산다고 그러듯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동양화학 주변에서, 주변공장 근처에서 붙어서 사는 거야. 그러면 동양화학이나 주변공장에서는 명절 되면 돼지고기라도 조금씩 사다 주고 뭐 그런 일이 옛날에는 많았죠. 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동양화학뿐이 아니고 다 똑같아요.

지원자: 어느 지역이나 그럴 것 같습니다.

면담자: 너무 긴 시간 인터뷰 해 주시느라고 정말 감사했습니다.